



유럽 경제 회복과 재정위기 진정 국면

이정환 선임연구원

■ 최근 아일랜드, 그리스의 경기회복이 가시화 되면서 유럽 재정위기가 진정국면에 진입하는 모습을 보임.

- PIIGS 국가 중 아일랜드는 2010년 부동산시장 붕괴, 은행권 부실대출 악화로 IMF, EU, ECB 3개 기구로부터 받은 구제금융 850억 달러를 2013년 12월에 상환한다고 발표함.
 - 아일랜드 정부는 소비, 투자(부동산시장 회복에 따른 건설 투자 증가), 수출 증가에 힘입어 경제성장률이 2013년 0.2%, 2014년 1.8%를 기록할 것으로 전망
 - GDP 대비 재정적자 비율이 2011년 -13.4%, 2012년 -7.6%에서 2013년 -7.3%, 2014년 -4.8%로 개선될 것으로 예상함.
- 그리스는 예산초안에서 관광산업 호황, 수출 증가로 경제성장률이 2013년 -4%대에서 2014년 0.6%로 상승할 것으로 예상하였으며, 이에 따라 2013년부터 재정흑자가 가능할 것으로 전망함.

■ 유로존 경제는 2011년 4/4분기부터 지속된 마이너스 성장에서 벗어나 2013년 2/4분기에는 전분기대비 0.3% 성장함.

- 2013년 2/4분기 유로존의 소비와 투자는 전분기대비 각각 0.1%, 0.2% 증가하였으며, 특히 수출은 전분기대비 2.1% 증가하여 성장에 크게 기여함.
- 국가별로는 독일(0.7%), 프랑스(0.5%)를 비롯한 영국(0.7%)이 2013년 2/4분기 현재 전분기대비 플러스 성장하였고, PIIGS 국가 중 아일랜드(0.4%)와 포르투갈(1.1%) 역시 전분기대비 플러스 성장함.
- 권역별로는 일부 국가¹⁾를 제외한 서유럽, 북유럽, 동유럽권 대부분이 2013년 2/4분기 현재 전분기대비 플러스 성장함.

1) 네덜란드 -0.1%, 스웨덴 -0.2%, 슬로베니아 -0.3%

■ 체감경기 역시 개선되었고 유럽 대부분 국가들의 경기선행지수(CLI)가 상승하면서 경제회복에 대한 기대가 높아짐.

- 유로존 체감경기지수(ESI)는 2013년 6월부터 4개월 연속 상승함.
 - 소비자신뢰지수는 9개월 연속 개선되었으며, 투자자 심리를 반영하는 제조업기대지수는 4개월 연속 개선됨.
 - 유로존 경제가 직면한 문제점이 아직까지는 적지 않은 수준이지만, 2012년 하반기 유럽중앙은행의 국채매입(OMT)으로 역내 재정위기 국가에 대한 우려가 완화되면서 경제 주체들의 심리가 개선되는 것으로 보임.
- 2013년 5월 유로존의 CLI(100.1)는 19개월 만에 처음으로 100²⁾을 상회하였고, 2013년 8월 CLI는 100.6을 기록하면서 4개월 연속 상승함.
 - 유럽경제 BIG4(독일, 영국, 프랑스, 이탈리아)의 CLI는 2013년 5월 100.0을 기록하였고 8월에는 100.5까지 상승함.
 - 서유럽지역에서는 2013년 8월 오스트리아(100.1), 벨기에(100.2), 네덜란드(100.1)의 CLI가 100을 상회하였고, 동유럽(체코, 폴란드, 슬로바키아, 슬로베니아)³⁾의 CLI는 빠른 경우 2013년 2월부터 늦은 경우 7월부터 100을 상회함.
 - 특히 PIIGS 중 아일랜드는 2012년 3월부터, 스페인은 2012년 12월부터, 그리스와 포르투갈은 각각 2013년 2월과 3월부터, 이탈리아는 2013년 6월부터 100을 상회함.⁴⁾
- 또한 인플레이션율이 안정세를 보임에 따라 금리 인하의 여지가 있다는 점도 경제회복 지속에 긍정적인 요인으로 작용함.
 - 유로존 소비자물가상승률은 2013년 9월 1.1%를 기록하여 2010년 8월 이후 가장 낮은 수준이며, 유럽중앙은행의 물가억제 목표인 2.0% 수준보다 낮음.

■ 경기침체, 은행위기, 재정위기 악순환에 빠져있던 유럽 경제가 회복세를 보여 세계 경제와 국내 경제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임.

- 브루킹스연구소는 G20국가의 경기회복 여부를 판단하는 타이저지수⁵⁾가 유럽경제 회복에 힘입어 2013년 8월 2.11로 크게 개선되면서 선진국경제가 회복세에 진입하였다고 분석함.

2) CLI가 100 이상이면 경기확장, 100 이하이면 경기위축을 의미.

3) 2013년 8월 현재 체코 100.3, 폴란드, 101.0, 슬로바키아 100.2, 슬로베니아 100.5

4) 2013년 8월 현재 아일랜드 101.9, 스페인 102.0, 그리스 101.8, 포르투갈 101.4, 이탈리아 100.7

5) 타이저지수는 G20 국가의 경기 회복 여부를 판단하는 지표임. G20 국가의 GDP, 수출입규모, 금융지표, 기업 및 소비자신뢰지수 등을 종합하여 매월 산출해서 발표함. 0을 상회하면 경기는 회복 국면에 들어선 것으로 해석됨.

- 유럽 재정위기가 심각하였던 2012년 6월 타이거지수는 -14.97을 기록함.
- 한국무역협회는 유럽의 경제회복으로 그동안 감소하였던 對유럽 무역이 회복되고 특히 對EU 수출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함.
- 유럽재정위기 심화되었던 2012년 우리나라의 對유럽 무역 비중은 13.1%로 2004년 15.7% 보다 크게 감소함.

(유럽중앙은행, 유럽통계청, Financial Times 등)